

「특별 취재- 로얄 아카데미 스쿨의 졸업전, 젊은 작가들을 마주하다」 Interviews with young graduates from Royal Academy Schools

글_노희진(영국통신원)

6월부터 8월간 영국은 유수히 많은 미술 대학들의 졸업전시로 그 열기가 가득하다. 미술에 관심 있는 평범한 영국인들도 연례행사로 의례 방문하는 이러한 졸업전들은 영국 미술계의 저변화된 문화 형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영국에서의 미술 졸업전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학교나 학생들 모두 '디그리 쇼 degree show'라 불리는 졸업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올러 이러한 졸업전이 강조되는 또 다른 이유들도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컬렉팅 문화가 정착된 영국인들의 생각에, '미래의 데미안 허스트'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변화하는 미술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작가적 입장의 학생들에게는 처음으로 미술계의 진중한 잣대에 놓이는 중요한 문턱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사치나 프랭크 코헨 등 세계적 컬렉터들은 벌써 20여 년간 디그리

리 쇼를 통해 젊은 작가들에게 배팅해 온 것이 사실이며, 영국의 미술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사치가 나의 작업에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관행처럼 자리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런던의 6대 미술대학이라 할 수 있는 로얄 컬리지 아트 Royal College of Arts, 로얄 아카데미 스쿨 Royal Academy Schools, 슬레이드 Slade, 첼시 Chelsea, 세인트 마틴 St. Martin, 캄버웰 Camberwell에서도 디그리 쇼를 통해 젊은 작가들의 역량과 학업기관의 성취도를 보여주느라 분주하다. 그 중 필자는 기성작가 군에 버금가는 완성도 높은 전시를 보여준, 로얄 아카데미 스쿨을 방문하여, 세 명의 졸업생과 인터뷰를 하였다. 특히 이 학교는 일년에 15~18명의 소수정에 인원만을 고집하며, 전액 장학금 수혜, 3년 과정의 유일한 순수미술대학원 과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학교들과 현저히 차별화된 교육 기관이다. 200년이 넘는 우수한 전통에도 불구하고,

고, 현대에 이르러 터너를 배출한 학교임에도, 터너상 수상자가 없었다고 할 만큼 한때는 진부하다고 치부되던 시기도 있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개혁된 자유로운 교육방침은 이곳 학생들을 세계적 작가로 준비시키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다.

로얄 아카데미의 올해 졸업생 중에는 한국인 최초로 강임윤 작가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강임윤 작가는 단 한 명에게 수여된다는 최우수 금메달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수많은 지역에서 온 경쟁한 실력자들을 제치며, 한국 출신의 젊은 작가로서 그 위상을 자랑스럽게 빛내기도 했다.

18명의 졸업생 중 필자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길을 찾은 세 명의 작가, 캐서린 스토리 Catherine Story, 팀 엘리스 Tim Ellis, 강임윤과 인터뷰하였다.

각 작가들에게 던진 공통의 질문은 아래와 같다.



▲강임윤 (Appetiser) 50×50cm oil on canvas
▼강임윤 (Eden of Hans) 240×150cm oil on canvas



강임윤 Eemyun Kang

Q. 처음 로얄 아카데미에 입학했을 당시와 지금 졸업하는 당신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A. 로얄 아카데미가 학교로서 교육의 역할도 컸지만, 들어간 이후 작품세계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작가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준 곳이다.
이 곳에서 나는 작업에 대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다. 또한 다른 작가와 어떻게 시대를 공유하고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내 자신의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그만큼 다른 이들에게 나만의 언어로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것 같다.

Q. 이러한 미술교육기관을 통해 어떠한 장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A. 로얄 아카데미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뮤지엄의 기능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많은 대가들과 접하고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서포트를 아낌없이 주는 곳이기도 하다.

Q. 혹시 이런 교육기관 안에 있어서의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A.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은 현대적이지만, 학교의 구조는 매우 영국적이고 보수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방인의 의문스러움을 많이 느끼게 한 것 같다.

예를 들어, 학부로 다니던 슬레이드 학교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유분방했던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 영국의 수직적 사회구조 계급주의의 넘어설 수 없는 벽을 알게 된 것이 매우 이색적이었다.

Q. 다른 동료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주변에 다른 뛰어난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매우 든든하다. 학업 중에는 서로 경쟁의식이 높지만, 막상 외부에서는 서로를 돕고 끌어주는 구조이다. 동료들 중에 많은 작가들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다.

Q. 당신은 어떠한 위치의 작가가 되고 싶고, 어떠한 작품을 만들고 싶은가?
A. 일정한 카테고리 안에 머물지 않는 자유로운 작업을 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다. 누군가 좋은 작업의 정의는 다음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했는데, 그 말에 공감한다. 또한, 작품 판매의 경험을 갖고 나니, 나의 작업을 소장한 분들로부터 얻는 피드백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동, 세상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작가가 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또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는 꾸준한 작가가 되고 싶다.


Q. 당신의 미래 계획은 무엇인가?
A. 우선은 잘려있는 전시들 9월 베이징 그룹 전, 11월 뉴욕 개인전, 예술의 전당 그룹전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또한 작품에 있어서도,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싶다.

로알 아카데미 스쿨 최초의 한국인 졸업생인 강임윤 작가 1981년 출생은 매해 최우수 작가에게 수여하는 금메달을 안는 영광을 누림으로써, 주변의 한국인들을 매우 뿌듯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영국에 있는 같은 또래의 그 어느 작가보다도 활발한 전시활동을 했고, 크고 작은 많은 그룹전들에 참여함으로써 탄탄한 전시 경력과 실력을 쌓아왔다. 슬라이드 학부를 졸업한 강 작가는 8년간의 영국 생활을 통해, 같은 조건의 영국작가들보다도 더욱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영국 화단에 들어설 수 있는 기회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

로알 아카데미의 디그리 쇼에서 강 작가는 누구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졸업하지만, 신생 작가로서 세계의 화단에 뛰어드는 것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두려운 면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학생 시절부터 꾸준히 유수의 딜러들과 큐레이터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온 그이지만, 새롭게 접할 세상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은 마음과 순간순간의 결정에 대한 고민 등은 끝이 없

다고 했다. 초창기에는 안정적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싶어 전속 갤러리에 관한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작가의 입장에서 아직은 공공전시 등에 더 많은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각기 다른 미래의 계획을 펼쳐 나가는 젊은 세 작가를 인터뷰하는 동안, 세 상으로 뛰어드는 작가들의 희망과 두려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들 세 사람이 세상의 모든 젊은 작가들의 대변하는 사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젊은 작가로서 이들이 갖는 진지함과 미래에 대한 의연함, 또한 창조에 방식에 대한 두려움 없는 시도 등은 세상에 뛰어든 신생작가라면 누구나 배울법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노화진은 멜번대 미술관학 석사 과정 수료, 영국 소더비 인스티튜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후, Bright Treasure Ltd 를 2006년에 설립하여, 한국, 상하이, 영국, 유럽 등지에서 전시기획과 세계 유명 컬렉션의 어드바이저 역할로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임윤 작가와 전시장 전경